한국문학논총 제40집(2005. 8) 59~82쪽

홍대용 연행록의 구성방식과 성격

정 훈 식*

차 례

Ⅰ. 들머리
Ⅱ. 텍스트 구성방식과 성격
1.『회우록』: 대화적 구성과 한중교류의 새 지평
2.『연기』: 견문의 범주화와 중국 담론의 재구성
3.『을병연행록』: 여행의 총체적 재현과 독자 확대
Ⅲ. 마무리

Ⅰ. 들머리

이 글은 홍대용의 연행록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성방식과 성격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홍대용은 연행록의 저술관습[1]을 수용하면서도 이례적인 방식으로 연행체험을 기록해 두었다. 우선 두드러진 특징은 연행을 다녀온 이들이 연행록을 저술한 경우 보통 한 편을 엮는 정도인데 그는 세 편의 텍스트를 남겼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홍대용 연행록의 저술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적지 않으나 이러한 의문에 대한 논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각 텍스

* 부경대학교 강사

1) 연행록의 저술은 일반적으로 공식사행기록인 謄錄의 일기체를 취한다. 이는 날짜별로 글의 순서를 정하고 날마다 생긴 일, 날씨, 노정 등을 기록하는 서술하는 방식이다.

트의 표기언어도 다르다. 언어의 선택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계층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때, 홍대용은 당시 연행록을 둘러싼 독서관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 구성의 방향을 구상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이 밝혀진다면 연행록의 생성유통공간에서 홍대용의 텍스트가 지닌 성격을 해명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논의에 앞서 세 텍스트를 개괄해 본다. 먼저 『會友錄』은 그가 북경에서 만난 항주선비와 수차례에 걸쳐 필담한 초고를 있는 대로 수습하여 옮긴 「乾淨衕筆談」과, 이후에 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함께 엮은 것이다. 「건정동필담」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따로 떼어낼 필요성을 느꼈겠지만, 그보다는 그것 자체가 홍대용의 연행체험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녀 여타의 것과 구분할 필요에 의해서 독립된 텍스트로 구성하였을 것이다. 필담이 독립된 텍스트로 저술된 일은 연행록의 경우 처음 발견되는 사례이며 이의 출간과 동시에 일어난 파장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 만한 파장을 일으킬 동인이 내재해 있음이 분명하다.

『燕記』는 전체 연행체험 중 『회우록』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견문을 선별하여 항목별로 분류한 뒤 소품에 가까운 글로 지어 遊記나 雜記의 형태에 일기를 보완하면서 엮은 것이다. 『연기』가 대상으로 하는 독자는 한문 식자층이라 서술방식도 한문 식자층의 독서관습에 맞춘 결과이다. 그런데 한문연행록의 경우 일기체를 기본 틀로 삼는 것이 관례인데 연기는 雜記의 형식을 취하였다.[2] 이 같은 편집체재의 변화에는 필시 저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것인 바, 『연기』를 편집하는 동안 홍대용의 생각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이 또한 본론에서 다루고자 한 문제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을병연행록』은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일기체로 저술하되 국문으로 저술했다. 일기체가 선행하는 연행록 글쓰기 방식을 계승한 것이라면, 국문

2) 물론 잡기의 형태가 선행연행록에도 전해온다. 李恒福의 『朝天錄』은 한시, 일기, 기문의 복합구성이며, 『노가재연행일기』에는 「山川風俗總錄」이라는 잡기가 일기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에서는 기문이 독립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항목을 나누어 편집하여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로 엮은 경우는 선행 연행록에서는 드물지만 대표적으로 趙憲의 『東還封事』(1574)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초고로 하여 지어진 것이 특이하다. 하지만 이는 조선의 시정개혁이라는 저술목적에 충실한 편집체재라 『연기』의 편집형태와 관련지어 하나의 맥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글쓰기는 이전 표기언어관습에 대한 혁신이다.[3] 특히 『을병연행록』은 홍대용이 남긴 세 편의 연행기록 중에서 총체적 면모를 가장 온전히 지니고 있는 텍스트이다. 국문으로 된 작품을 여행의 총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저술한 그 의도는 무엇일까? 현재 이 작품에 대하여 여성중심의 한글독자층을 위한 작품이라는 견해[4]에서 나아가는 언급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이는 국문연행록의 역사적 전개에서 연행록의 독자확대를 위한 시도와 관련지어 볼 때 더욱 분명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홍대용은 이처럼 선행 저술방식을 수용하되 새로운 구상에 의해 독특한 방식으로 여행체험을 엮어놓았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 홍대용 연행록의 전반적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작업임은 물론 연행록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조망하는 데서 하나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Ⅱ. 텍스트 구성 방식과 성격

1. 『회우록』 : 대화적 구성과 한중교류의 새 지평

앞서 언급한 대로 『회우록』[5]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만난 항주의 세 지식인

---

3) 『을병연행록』 외에 국문연행록이 5편정도 전한다. 『을병연행록』(1765~66) 앞에 『죽천행록』(이덕형, 1624), 『노가재연행일기』(김창업, 1712~13) 등이 있으며 뒤로는 최근 발견된 국문본 『열하일기』(1780), 『무오연행록』(서유문, 1798) 등이 있다. 한문본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규모이지만 한문연행록과 국문연행록의 부단한 상호교섭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더욱이 한문기록관습이 대세였던 연행록에서 국문연행록은 그 자체가 표현의 혁신이라 할 만하다. 최근 국문연행록을 묶어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져 국문연행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조규익, 『국문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참조) 하지만 한문학과 국문학에서 연행록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 위상에 대해서 좀더 진전된 연구가 요망된다.

4) 김태준, 18세기 조선지식인의 중국여행,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5쪽.

5) 본래 『회우록』은 박지원이 「건정동필담」을 두고 붙인 표제이지만, 편지와 필담을 아우른 제목으로 적당하다. 20세기 초 후손 洪榮善이 『담헌서』를 편찬할 때 『항전척독』이라는 제목 아래 연행 이후 주고받은 편지와 『건정동필담』을 묶어 놓았

과의 교류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과 주고받은 필담기록과 북경에서 주고받은 편지, 귀국 후에 보낸 편지 등을 모아놓은 작품이다.「건정동필담」의 편집과정을 통해 보면 저자는 스스로 이 필담을 연행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귀국 후 가장 먼저 이 필담의 정리 간행에 힘을 쏟았으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고자 노력했다.[6]

그런데 이『회우록』의 구성방식은 연행록에서는 전례가 없다.[7] 홍대용은「건정동필담」의 저술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 철교와 추루와 함께 회합한 것이 7회이고, 소음과 회합한 것은 두 번이었다. 회합하면 반드시 날이 다 가야만 파했다. 그 담화함에는 각각 종이와 붓을 가지고 빨리빨리 써나가, 피차에 거의 손을 멈추는 일이 없었으므로 하루 동안에 만 마디의 말만이 아니었다. 다만 그 필담 초본은 대부분 추루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록에 내놓은 것은 다만 갖고 있는 초본에 의하였고, 그 초본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여 쓴 것이란 십 분의 1·2에 불과하다. 26일 돌아올 때 추루가 손님을 응접하느라고 밖에 있었으므로 걷어온 것이 매우 많았으나 그래도 그 3분의 1은 잃었다. 또 피차가 오직 통화하기

지만, 척독이란 말에 필담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건정동필담」과 편지를 함께 이를 땐『회우록』이란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

6) 홍대용은 북경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건정동필담」을 엮어 박지원에게 서문을 맡기고 중국사행 가는 인편을 통해 필담을 나눈 당사자인 항주의 지식인들에 보내면서 수정보완을 부탁하였다.
"전번에 말씀드린『회우록』3권은 매양 한가한 틈을 타 뒤적이며 보노라면 어렴풋이 건정동에서 마주앉아 토론하던 때와 같아 만 리 밖에서 회상하는 괴로움을 위로하기에 족합니다. 그때의 담초(談草)는 대부분 형이 보관하게 되어 주기할 도리가 없었고, 여기서 편차한 것은 다만 갖고 있는 재료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것이 이미 많이 누락되었고, 말의 맥락이 또한 앞뒤가 잘 맞지 않는데, 이를 억측으로 이제야 보충하고 보면 도무지 본색이 아니게 될 것이니 자못 가탄스럽습니다. 보관하셨던 원초를 혹시라도 그냥 갖고 있거든 그 중에서 기록할 만한 것을 골라내고, 피차에 수작한 것을 아울러 기록하여 보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3권의 책도 형이 또한 보실 뜻이 있으시다면 바로 인편에 부쳐 보여드리겠습니다." (與秋庫書, 국역『담헌서』Ⅱ, 민족문화추진회, 1974, 60쪽)

7) 통신사사행문학은 일찍이 필담으로만 된 독립된 텍스트가 나왔다. 1711년 조선통신사와 일본 문인·정치가 新井白石의 필담기록인「江關筆談」(임수간 편,『東槎日記』坤,『해행총재』Ⅸ, 민족문화추진회, 1982)이 그것이다. 이 필담기록은 신묘년의 통신사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다.(김태준,「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강관필담을 중심으로」, 숭실대 논문집 18, 1988. 참조)

> 에 급하였으므로 쓴 것이 난잡하고 차서가 없는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물은 것은 있고 대답 없는 것이 있으며, 대답은 있고 물은 것이 없는 것도 있으며, 외마디 말로서 앞뒤가 없는 것도 있다. 이러하니 추기(追記)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세 사람의 말에 있어서는 두어 자씩 첨가하여 보태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그 말법이 문득 본색을 잃게 되니 이것은 어찌할 도리 없었다. 또 혹 그사이사이 나타나 중첩되거나 혹 끊어졌다가 혹 이어졌다 하는 것도 많으니 이것은 날이 오래된 뒤 추기하고 한갓 필담 초고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 형세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말은 평중이 항상 번다할까 걱정했으므로 많이 잘라냈고, 나는 항상 간단할까 걱정했으므로 많이 첨가하였으니, 요컨대 어세를 잘 매만져서 그 본의를 잃지 않게 하였을 따름이다. 그 방해될 것이 없는 것은 될 수록 본문대로 살려두었다. 그 제 본색대로 성실을 다하고 일부러 꾸밈이 없음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이다.[8]

위 인용문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7차례에 걸쳐 필담을 나누었는데, 한번 회합이 이루지면 날이 저물어야 파했으며 여기서 주고받은 필담은 무려 만여 마디가 넘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한 만남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진 필담을 엮으면서 가급적 모두 수습하여 엮으려 했으나 문답의 일부가 사라지고 없는 것, 차서가 없는 것 등이 있어 부득불 기억에 의존하여 앞뒤를 이었다고 저술의 과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홍대용이 이 필담을 엮는 과정에서 최대한 당시상황을 가감 없이 재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텍스트에는 필담을 나눈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홍대용은 단지 편집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다. 필담에 저자의 관점 외에 대화를 나눈 여러 당사자의 시점이 공존하고 있음은 이에 기인한다. 대개의 연행록은 서술당사자의 단일한 시

8) "與鐵橋秋庫會者七與篠飮會者再會必竟日而罷其談也各操紙筆疾書彼此殆無停手一日之間不啻萬言但其談草多爲秋庫所藏是以錄出者惟以見存之草其無草而記得者十之一二其二十六日歸時秋庫應客在外故收來者頗多猶逸其三之一焉且彼此惟以通話爲急故書之多雜亂無次是以雖於其見存者有問而無答者有之有答而無問者有之一語而沒頭沒尾者亦有之是則其不可追記者棄之其猶可記者於三人之語亦畧以數字添補之惟無奈其話法頓失本色且多間現疊出或斷或續此則日久追記徒憑話草其勢不得不爾吾輩之語則平仲常患煩故多刪之余常患簡故多添之要以幹旋語勢不失其本意而已其無所妨焉則務存其本文亦可見其任眞推誠不暇文其辭也"(乾淨錄後語, 국역 『담헌서』Ⅱ, 345-346쪽)

선만 보인다. 대화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기록자에 의해 선택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회우록』은 연행록에서 타자의 관점을 인정하고 이를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처음 확인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는 홍대용이 보여준 상대주의적 사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9]

필담은 중세 한문문명권에서 말이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한 의사교환방식이다. 홍대용이 필담을 책으로 엮고자 했던 배경에는 건정동의 기이한 만남을 잊지 않고 기념하려는 것은 물론 그때 맺어진 우정을 오랫동안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또 한편 자신들이 나누었던 필담을 거울삼아 그 속에서 드러난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 의도도 크게 작용하였다.

> 앞서 알려드린 「회우록」중에는 형의 기탄없이 토론한 해학스러운 말을 모두 삭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이 이루어진 뒤에 동방의 사우 중 몇 사람이 보고, 형을 위하여 사랑하기도 하고 도한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사랑한 사람은 그 재기가 지극히 영달함을 사랑한 것이요, 애석하게 여긴 사람은 그 덕기가 너무 드러난 것을 아까워한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 드러난 듯하다는 두 글자는 제가 처음 만나 뵙고 수작할 때에 이미 먼저 느꼈었던 까닭에 작별할 때 드린 말에도 간절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타인들이 본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 구구한 충고의 뜻을 감히 다시 진달하여 수양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고자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10]

---

9) 그의 「의산문답」은 상대주의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예컨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으로써 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물이 천하지만 물로써 사람을 보면 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물이 마찬가지다."(「의산문답」, 국역 『담헌서』 Ⅰ, 454쪽)
"중국인은 중국을 정계로 삼고 서양을 도계를 삼지만 서양인은 서양을 정계로 삼고 중국을 도계로 삼는다. 그러나 실에 있어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사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으니, 횡(橫)이나 도(倒)할 것 없이 모두 정계다."(위의 책, 460쪽)
특히 의산문답 마지막의 '域外春秋論'은 화이라는 구분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상대주의적 사유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 박희병, 홍대용 사상에 있어서 物我의 상대성과 동일성,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277-293쪽 ; 임형택, 홍대용의 의산문답-虛와 實의 의미 및 그 산문의 성격,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167-180쪽. 참조.

이 인용문에서 홍대용은 필담이 단순한 대화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품과 사상, 그리고 지식의 수준, 문장의 수준까지 자신들의 모든 면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담에는 대화주체의 재기와 장점, 허물과 모자람이 모두 드러나 있어 이를 되새기면서 스스로 부족한점을 찾아 수양하고, 허물을 찾아 고친다면 수양공부에 더 없이 좋은 자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읽는 독자에도 큰 배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필담이 편지라는 형태로 후세에까지 이어지면서 긴 시간을 통해 교유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끈끈히 맺어진 우의도 있었지만 그들이 나누었던 경계를 넘나드는 사상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 있었다. 우선 그들은 상대방나라의 시문, 저술자료 등 텍스트의 교환으로 상대방 나라의 학문과 역사, 풍습 등에 대하여 이해를 넓혀 나갔다.[11] 아울러 궁금한 내용을 묻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에 대하여 올바르게 고쳐 나갔다.[12] 이뿐 아니라 그들은 학문방법에 대한 의견, 수양방법에 대한 생각 등을 교환하면서 서로를 이끌어 주었다.[13] 나아가 이들은 서로의 인물됨에 대하여 시를 짓고, 서로가 살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記文을 써 주기도 하였다.[14]

---

10) "前告會友錄中吾兄信口諧謔之談不能都歸刊落錄成後東方士友略有見之者莫不爲吾兄愛且惜焉愛之者愛其才氣之極於英達也惜之者惜其德器近於穎露也盖此二字弟已先獲於膽望酬酢之際者所以眷眷奉效於臨別之贈也今他人之見之者又如是則區區願忠之志敢不更以靦縷思有以少補於修省之功耶"(與秋庫書, 『항전척독』, 국역 『담헌서』Ⅱ, 33-34쪽)

11) 홍대용 보낸 편지에서 붙인 것으로 확인 된 책은 이이의 『성학집요』(『담헌서』Ⅱ, 38쪽), 직접 엮은 『해동시선』(앞의 책, 57쪽), 김창협의 『농암잡지』, 김창흡의 『삼연잡록』(77쪽) 등이며, 『황면재집』(59쪽), 『소자전서』(60쪽), 『천문류함』(60쪽) 등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예컨대 과거에서 시문을 팔고라고 부르는 이유(앞의 책, 117쪽), 중국에서 젓가락만 사용하게 된 유래(124쪽), 화약 사용의 시초(126쪽) 등 의문이 나는 것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물었으며, 특히 「명기집략」이라는 중국책에 조선의 사정을 잘못 기재한 것을 두고 이를 바로잡는 글을 써서 보내고, 홍익한의 연행록 「홍화포주청일록」을 줄여서 보내기도 하였다.(43-57쪽)

13) 편지 마다 독서법, 교우론, 그리고 학문의 길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철교가 과거에 낙방한 것이 오히려 축하할 일이라고 하며 과거비판론을 전개하였다(앞의 책, 37쪽).

이처럼 필담과 편지글의 복합적인 구성은 교유주체들 간의 깊은 신뢰와 수준 높은 사상세계 그리고 객관적 조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의를 이어가려는 열정이 빚어놓은 산물이며 이것이 일차적으로 이 글의 미적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건정동필담」은 출간되자마자 지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비난과 찬사를 동반한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사회문화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 만큼 이것은 조선의 정책인 북벌론, 화이론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는 문제적 사건이었던 것이다.[15]

요컨대 홍대용과 항주지식인의 교유는 한문문명권 사람들이 通文하면서 나눈 사례 중 가장 모범적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필담은 이전의 시문창화[16]와 같은 전통적 교류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류방식을 개척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 이를 만하다. 따라서 『회우록』은 한중지식인의 교류사에서 매우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건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17]

2. 『연기』 : 견문의 범주화와 중국담론의 재구성

『연기』는 견문을 항목별로 배열하여 연행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관심이 집중된 항목의 면모와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특정대상이나 사건을 항목으로 설정 한 뒤 이의 구체적 인식과 체계적 고찰이 가능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연기』가 항목을 배열해 놓은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14) 반정균은 담헌의 거처를 듣고 쓴 「湛軒記」를, 육비는 홍대용의 천문연구실에 관한 글 「籠水閣記」를, 김재행의 거처를 듣고 「養虛堂記」를 써 주었으며, 여러 편의 시도 지어 주었다.

15) 자세한 사정은 정훈식, 「건정동필담」과 사행문학의 전환, 『배달말』 31집, 배달말학회, 2002. 참조.

16) 임기중은 화답시라는 용어로 시문창화를 설명하기를 조선과 중국사이의 자연스럽고 중요한 외교방식이라고 하였다.(「연행록의 화답시」,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87쪽)

17) 『회우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널리 전승된 한중교류의 미담이었다고 한다. 북한학자 최익한에 의하면 50년대 중국에서 출간된 『中朝人民的交誼關係與文化交流』라는 책에 "홍대용과 전당인 엄성이 북경에서 단시일의 회합에 깊은 우의를 맺고 정성껏 서로 느꼈으므로 청인은 홍·엄의 교의를 미담으로 전하였다"고 씌어 있다고 하였다.(최익한, 『실학파와 정다산』, 국립출판사(평양), 1955(한국문화사 영인본), 131쪽)

아래와 같다.

범 주	항 목	수
인물·문답	吳彭問答 莊周問答 劉鮑問答 衙門諸官 兩渾 王擧人 沙河 郭生 十三山 宋擧人 舖商 大學諸生 張石存 葛官人 琴舖 劉生 藩夷殊俗 拉助敎 鄧汶軒 孫蓉洲 撫寧縣 賈知縣 貞女廟學堂 宋家城(이상 外集 권7) 孫進士 周學究 王文擧 希員外 白貢生(이상 外集 권8)	27
연행기략 및 기타	沿路記略 京城記略(이상 外集 권8) 留館下程 財賦總略 路程(이상 外集 권 10)	5
유람장소	望海亭 射虎石 盤山 夷齊廟 桃花洞 角山寺 鳳凰山 京城制 太和殿 五龍亭 太學 雍和宮 觀象臺 天象臺 法藏寺 弘仁寺 東嶽廟 隆福市 琉璃廠 花草舖 暢春園 圓明園 西山 虎圈 萬壽寺 五塔寺(이상 外集 권9)	26
사행의 공식조참행사	入皇城 禮部呈表 鴻臚演儀 正祖朝參(이상 外集 권9) 方物入闕(外集 권10)	5
풍속·문물제도	元宵燈炮 東華觀射 城南跑馬 城北遊(이상 外集 권9) 幻術場戱 市肆 寺觀 飮食 屋宅 巾服 器用 兵器 樂器 畜物(이상 外集 권10)	15
계		78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기』는 시간의 구성에 따른 배열 대신 대상의 성격에 따른 기록의 범주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사람과 풍속에 대한 서술이 확대된 점이다.[18] 반면 노정, 조참행사 등에 대한 내용은 공식 비공식 연행기록에 숱하게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記略의 형태로 대폭 줄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듯 『연기』의 체재는 여행의 재구성에 의한 결과이다. 여행의 재구성은

18) 물론 이런 점이 홍대용의 연행록에서 갑자기 드러난 것은 아니다. 선행시기에서 이런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으로 『노가재연행일기』를 거론할 만하다. 이후 연행록이 장구한 시간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상황에서 홍대용의 연행록이 또 한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다.

사건, 견문을 분류하고, 그것의 경중을 가늠하는 과정을 통해 編目하는 작업이다.『연기』에서 항목으로 제시된 것은 선별과 배제를 거친 것이며, 작자의 의도는 이 선택된 항목의 구성방식에 내재되어 있다. 서술 또한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

『연기』는 사람과의 나눈 문답 항목을 맨 앞에 놓아두었다.[19] 인물· 문답은 중국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의식에 관심이 놓여 있다. 글하는 선비, 장사치, 청조의 녹을 먹는 관리, 오랑캐는 물론 심지어 그와 동행한 수레꾼까지 관심을 기울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히 '淸人列傳'이라 일컬어도 무방할 정도이다. 특히 홍대용은 만인과 한인의 성품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 (1) 양혼의 나이는 31세인데, 얼굴이 붉고 수염이 없으며, 몸집은 크고 걸차 문아한 맛은 적었다. 그러나 기미가 너그럽고 무거워서 함부로 떠들거나 웃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옛 친구를 만난 듯이 대답하는 것은 아마 만주 사람의 소성이 그런 듯하였다.[20]
>
> (2) 한번은 걸어서 옥하의 다리 북쪽에 이르렀는데, 회자 한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갔다. 옆에서 바라보니 수염과 눈썹이 험상궂고 고약하기 호랑이 같아서, 가까이 할 수 없을 듯하였다. 나는 시험 삼아 앞으로 가서 갑자기 중국말로 '안녕하십니까'하고 손을 들어 읍을 하였더니, 회자가 놀라서 돌아보고 읍을 하는데, 활짝 웃는 얼굴에 구김이라고는 없었다. 예부터 '오랑캐들은 성품이 솔직하다'한 것이 빈말이 아니다.[21]

홍대용은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만주족의 성품이 솔직하고 완악하지 않다고 하였다. (1)에서 양혼은 청 황실의 자제로 종친 유군왕의 작은 아들이요, 강희황제의 증손이다. 홍대용이 북경 유리창을 드나들면서 진가라는 점포주인의 소개로 양혼을 알게 된다. 그런데 홍대용보다는 양혼이 홍대용의 인품에 매료되

---

19) 표의 인물・문답 항목에서 '십삼산', '무령현' 등의 제목이 비록 지명을 따왔다고 하지만, 내용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목의 혼란이 있을지라도 내용을 보면 사람을 다룬 항목으로 분류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 "兩渾年三十一面赤而麻無髯體豊偉少文雅氣但氣味寬重不妄言笑開懷唯諾如逢舊識則滿住之素性也"(兩渾,『연기』,『담헌서』Ⅳ, 79쪽)

21) "嘗步行至玉河橋北回子一人先後行從傍望之鬚眉險怪如虎若不可近余試前進遽以華語問好擧手揖之回子始驚顧施揖破顔開心虛懷無餘蘊古云戎狄性直非虛語也"(蕃夷殊俗,『연기』,『담헌서』Ⅳ, 130쪽)

어 자주 만나기를 청하며 집으로 초대도 하고 예물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몇 번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는데 글의 말미에서 홍대용은 양혼을 위와 같이 평하였다. 청 황실의 자제를 통해 만주인의 성품을 유추하고 있음을 볼 때 그를 만주족의 일반적인 성품을 논하는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에서처럼 중국에 드나드는 다른 번이들도 다들 겉으로는 험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솔직하고 허물없음을 체험한 일화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연로에서 사는 처사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나면서 그들의 인품을 높이 칭송하기까지 하며[22] 그중 손용주라는 선비와는 귀국 후 편지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23] 이렇듯 연기의 첫머리에 중국인을 배치하면서 구성의 혁신을 꾀하여, 청조 만주인, 오랑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아가 선비가 사라져 중화가 무너졌다는 뿌리 깊은 오해도 불식시키려고 하였다.[24]

이어서『연기』에는 연행경로에 대해 개괄적 서술을 한 뒤 북경과 북경을 제외한 지역 중 명승지 내지 주요 유적지에 대하여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여기서 배치된 항목은 거의 연행록에서 보이는 것들이지만 특히 홍대용이 직접 올랐던 산이나, 보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를 보면 홍대용이 관심을 기울였던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연행의 공식행사인 조참과 방물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홍대용은 연로와 북경에서 본 온갖 사물, 제도 등을 만화경을 보듯 나열해 놓았다.

---

22) 귀로 중 삼하에서 만난 등문헌이란 선비는 인정이 후하여 홍대용은 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鄧汶軒,『연기』,『담헌서』Ⅳ, 141쪽), 영평부에서 만난 지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반기듯 하였고, 모습은 '신체가 단소하고 미목이 그림 같았다'라고 하였다. (賈知縣, 앞의 책, 150쪽)

23) 孫蓉洲,『연기』,『담헌서』Ⅳ, 142-146쪽.

24) 연기의 경성기략에서 홍대용은 "풍속이나 인심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배나 너그럽고 후하다. 비록 아무리 성을 내고 욕지거리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맹세를 하며 변명하면 성났던 사람도 곧 웃는 얼굴을 하며 마음을 털어놓아 다시는 의심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담헌서』Ⅳ, 209쪽)"고 재차 중국인의 성품을 언급한다. 특히 만주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장차 임금이 될 정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연행 후 翊衛司 侍直이 되어 동궁 앞에서 經史를 進講하며 토론할 때 그는 "대개 한인은 재주 있는 이가 많고 만인은 질실한 이가 많은데, 인품을 논하면 만인이 한인보다 낫습니다."라고 동궁에게 말한 바 있다.(「桂坊日記」,『담헌서』Ⅰ, 285쪽)

여기 수록된 사물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서술 또한 자세하다. 중국문물의 번성함과 그 제작의 정밀한 이치를 소상히 밝힌 것은 北學의 정립이라는 원대한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보면『연기』가 기존의 연행록과 다른 구성방식을 통해 한문 식자층에게 연행과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생성해내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5] 무엇보다『연기』의 핵심적 의도는 관념 속의 중국을 없애고 살아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이다. 홍대용은 대부분의 사대부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明과 중화의 기억을 걷어내고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중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여행체험을 재구성해 놓았다. 이는 곧 正典으로서의 중국을 텍스트로서의 중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배치이다.

3.『을병연행록』: 여행의 총체적 재현과 독자 확대

『을병연행록』은 6개월에 이르는 중국여행을 시간 순으로 촘촘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여정, 견문, 체험, 만난 사람과의 대화, 당시의 심정 등 기록할 만한 일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연행록은 다른 어떤 연행기록보다 방대하다. 연행록이 각각 그 서술양상과 규모는 다를지라도, 연행의 거리・행로・견문 등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전제하면 그 서술의 편폭과 자세함이 다른 연행록과 비교하여 월등하다.[26] 이렇듯『을병연행록』은 독자가 직접 연행하듯 출발과 귀환 사이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특히 서술의 편폭이 매우 넓고 치밀하여 단편적 기술을 넘어서서 대상의 숨겨진 이치는 물론 이를 통해 중국의 제도법칙을 통찰하는 데까지 이른다.『을병연행록』에 보이는 서술자의 내면서술은 그 이전 연행록과 비교하여 두드러

25) 이는 “지식추구의 취향”이라는 筆記의 성격을 십분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陳必祥은 “사람들이 필기를 열람하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심경호 옮김,『漢文文體論』, 이회, 1995, 144쪽) 연기를 저술한 목적이 새로운 인식과 지식의 제공에 있다고 한 말의 근거로 삼을 만한 언급이다.

26) 이미 소재영, 김태준, 조규익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이 잘 규명되었다.

진 특징의 하나이다.

> 이날 나갈 ᄊᆡ예 ᄆᆞᅀᆞᆷ의 싱각ᄒᆞ되, '뉴리챵의 셔칙과 긔완이 만흐니 만일 사기를 싱각ᄒᆞ면 ᄌᆡ력이 밋디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ᄒᆞᆫ 부졀업ᄉᆞᆫ 즙물을 가지고져 ᄒᆞᄆᆞᆫ 심슐의 병이 되리라.'ᄒᆞ야, 다만 눈으로 볼 ᄲᅮᆷ이오, 죠곰도 뉴렴ᄒᆞ미 업더니 도라와 안즈매 ᄆᆞᅀᆞᆷ이 챵연ᄒᆞ야 무어슬 일흔 슷ᄒᆞᆫ디라. 완호의 ᄆᆞᅀᆞᆷ을 옴기고 욕심의 제어키 어려오미 이러 ᄒᆞ더라.[27]

홍대용이 북경에 도착한 후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유리창을 유람한 뒤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이 인용문에 앞서 홍대용은 유리창의 온갖 기물과 갖가지 점포를 마치 만화경을 보는 듯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서술자가 바라보는 것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음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내면까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 연행록에 비해 두드러진 면을 보인다. 체험의 대상과 이를 바라보는 주체의 내면의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모두 아우른 것을 서술에서의 총체성이라 한다면 『을병연행록』의 방향은 燕行의 총체적 재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행의 총체적 재현은 연행록의 발전과정의 구체적인 징표이다. 즉 연행록 글쓰기의 발전은 연행의 체험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총체적으로 기술하느냐를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을병연행록』이라 할 수 있다. 『을병연행록』은 가능한 연행체험 모두를 소상히, 그것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데 선차적 중요성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서술 주체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연행에 대한 반성, 나아가 당대 조·중 관계에 대한 성찰에까지 이르고 있다.[28]

『을병연행록』의 이러한 특징은 『연기』와 상호비교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일찍이 이 둘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으나 한시의 번역양상을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라 전반적인 비교를 통하여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남아 있다.[29] 그 뒤 이어진 연구에서 체재와 표기언어 등을 다

27) 소재영 외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311쪽.
28) 정훈식, 「을병연행록과 18세기 조선의 중국읽기」, 『국제어문』 33집, 2005. 참조.
29) 김태준, 『담헌연기』와 『을병연행록』의 비교연구, 『민족문화』 11, 민족문화추진회, 1985.

루었지만 그와 같은 구성의도에 대한 해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30] 특히 더 유심히 비교해볼 대목은 서술양상이다. 표기언어에서 보이는『을병연행록』과『연기』의 상반된 지향은 그 글쓰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요동에서 서쪽으로 3백리를 가면 대륙이 바다처럼 가없이 넓어 해와 달이 들에서 떴다가 들에서 진다. 신점촌에 당도하자 뒤쪽에 열 두어 길이나 되는 작은 구릉이 하나 있기로 올랐더니, 조망이 참으로 상쾌하였다. 대개의 경우는 평야를 통과한다 해도 사방의 조망이 10여 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바다를 보지 않거나 바다와 같은 요동 들판을 건너보지 않고서는,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를 끝내 할 수 없을 것이다.[31]

(2) 십여리를 힝ᄒᆞ야 셕문녕을 넘으니, 압녹강물을 건너무로브터 이곳의 니느러 다 뫼히 험ᄒᆞ고 물이 만하, 길과 ᄆᆞ을이 다 뫼가온대 이셔 아국 두메길과 다ᄅᆞ미 업더니, 이 녕을 넘으며 십여 리를 힝ᄒᆞ야 뫼 어귀를 나가매 큰 들히 하ᄂᆞᆯ의 다하 압흐로ᄂᆞᆫ 뫼흘 보디 못ᄒᆞ니, 먼 수풀과 희미ᄒᆞᆫ 촌낙이 구롬 가온대 츌몰ᄒᆞᄂᆞᆫ 거동이 일시 경치의 됴흘분 아니라, 실노 사롬의 옹쥥ᄒᆞᆫ 흉치를 통연이 헤치고, 악착한 심ᄉᆞ를 돈연히 니줄디라. 스ᄉᆞ로 평싱을 혜아리니 독 속의 쟈ᄅᆞ와 우물 안희 개고리라. 엇디 ᄒᆞᄂᆞᆯ 아래 이런 큰 곳이 잇ᄂᆞᆫ 줄 ᄭᅳᆺᄒᆞ야시리오. 이 ᄯᅢ 비를 쓰리고 구름이 들흘 덥허 비록 먼니

30) 소재영·조규익,「담헌연행록연구」,『동방학지』97, 연세대국학연구원, 1998. 애초『연기』와『을병연행록』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선후문제이다. 이 글에서 둘은 각기 독자적으로 저술되었을 뿐 둘의 관계가 어느 하나가 원본 역본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분명 이 둘이 저술되기 전의 초고가 있었을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한문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건정동필담』은 그 초고가 바로 한문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그밖에 견문에 대한 메모 또한 한문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세 지식인의 글쓰기관습이 한문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더 높다. 그렇다면『연기』는 초고를 재구성한 결과이며, 이에 반해『을병연행록』은 국문으로 새롭게 저술한 것이다.『을병연행록』은 중국을 다녀온 뒤 약 70여년 뒤에 아들-며느리와 손자-손자며느리 등에 의해 필사되었다. 그러나 필사당사자가 한문원고를 보고 필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문초고는 홍대용이 직접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기별로 메모해 둔 한문초고를 마련한 다음『을병연행록』저술을 위한 국문초고를 별도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의 전모를 생생히 드러내기 위하여 크게 다듬었을 것으로 보인다.

31) "自遼東西行三百里大陸漫漫無涯涘日月出於野而沒於野至新店村後有小陵十數丈登眺心快盖行平野四望不過十餘里 是故不觀海不度遼地圓之說終不得行也"(沿路記略,『연기』,『담헌서』Ⅳ, 192쪽)

ᄇᆞ라보디 못ᄒᆞ나, 수릭예 안자시니 은연이 ᄒᆞᆫ 넙 져근 ᄇᆡ로 만경창히예 ᄯᅴ온 ᄃᆞᆺ ᄒᆞ니, 진짓 평싱의 큰 귀경이요, 댱부의 쾌ᄒᆞᆫ 노름이러라.[32]

(1)은 『연기』, (2)는 『을병연행록』에 기록된 것으로, 두 예문은 다같이 요동을 서술한 대목이다. 『연기』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느낌보다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듯한 면이 두드러진다. 서술의 초점은 요동들판이 그가 평소 품고 있던 '地圓之說'을 증명할 실체적 근거임을 역설하는 데 있다. 반면 『을병연행록』은 현장감이 두드러진다. 요동들을 본 것이 평생의 큰 구경이라고 하면서, 광활한 들에 구름이 일어나는 모습 등 순간적인 장면은 물론 드넓은 벌판을 잘 형상화하고, 자신의 심경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상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자아의 상황까지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기』는 감정서술이 자제되어 있으나 사리판단에 도움을 주는 평을 기술하고 있으며 『을병연행록』은 체험당시 심리적 정황에 대하여 매우 소상히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기』는 주로 요약적 제시를 통해 장면을 보여주는 반면, 『을병연행록』은 거의 서사적 형상화에 가깝게 장면을 생동감 있게 전개한다.

(1) 밤의 니덕셩이 드러와 니ᄅᆞ딕,"하ᄂᆞᆯ의 혜셩이 낫다."ᄒᆞ거ᄂᆞᆯ, 밧비 나가 북편을 ᄇᆞ라보니 과연 별 ᄒᆞᄂᆞ히 두어 자 불빗치 ᄲᅥ쳐시니 진짓 혜셩모양이라. 내 ᄀᆞᆯ오딕,"혜셩은 ᄇᆡ(舟)모양 갓ᄒᆞᆫ 별이라. ᄂᆞᆯ근 거슬 ᄠᆞᆯ어 ᄇᆞ리고 새 거슬 펴ᄂᆞᆫ 지변이니, 필연 황후를 폐ᄒᆞ고 새 황우를 셰울 징죈가 시브다,"ᄒᆞ더니, 이윽고 그별이 북으로 ᄎᆞᄎᆞ 도라가니 더욱 의심ᄒᆞ야 혹 흐ᄅᆞᄂᆞᆫ 별인가 넉이더니, 이윽고 ᄒᆞᆫ 하인이 드러와 니ᄅᆞ딕,"이ᄂᆞᆫ 별이 아니라 이곳 아희들이 밤의 연을 ᄂᆞᆯ니딕 밋히 화승을 ᄃᆞ라 올나가ᄂᆞᆫ 곳을 알게 ᄒᆞᄂᆞ니, 혹 지포ᄅᆞᆯ 도라 올니면 공듕의 화광이 더욱 보암즉 ᄒᆞ다."ᄒᆞ니, 비로소 혜성이 아닌 줄을 알고 웃고 헤여지니라.[33]

(2) 불을 뿜고 마디마디 터져 떨어져 나가는 것은 처음이나 같은데, 중간쯤 가서 갑자기 불덩이가 튀어나오는데 크기가 주먹만한 것이 하늘 높이 불화살처럼 날아올랐다. 또 한개는 불을 뿜어 올리는 것은 먼저와 같은데, 어떤 것은 공중에서 다시 터지는 소리를 내며 4-5개의 불덩이를 옆으로 쏘아 보냈다. 마치 유성처럼 보인다.… 이 종이 총 놀이가 천하에 골고루 퍼져 있

32) 『을병연행록』, 69-70쪽.
33) 『을병연행록』, 511쪽.

> 고 공사의 비용이 이러하니, 중국에 화약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알 수 있다.[34]

중국에 春節[설]이 되면 폭죽과 불꽃놀이를 하면서 액을 쫓고 복을 비는 풍습이 지금도 전해 온다. 이 때가 되면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폭죽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1)『을병연행록』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 이덕성이 불꽃놀이를 보고 혜성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청 왕실의 사태에 대한 일련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한다. 그런데 곧바로 한 하인이 들어와 불꽃놀이가 장관이더라는 말을 하니 비로소 그것이 혜성이 아닌 줄 알고 웃으며 헤어졌다는 내용이다. 이국의 생소한 풍속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웃지 못 할 사건에 대하여 빼어난 장면묘사로 처리한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반면 (2)『연기』는 이 대목을 유성인줄로만 알았다고 간략히 언급하고 만다. 이는 서술의 초점이 다름에서 나타난 결과이다.『연기』의 서술의 초점은 화약놀이에 대한 묘사와 화약의 풍부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에 반해『을병연행록』은 정보제공 못지않게 독서 자체의 재미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연기』가 개괄적 설명이 중심임에 반해『을병연행록』은 현장감 있는 생생한 체험의 형상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반적으로『연기』는 대상의 개념적 접근을 통해 사물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려했으며『을병연행록』은 크고 작은 사건과 인물의 형상화는 물론 주체의 심정까지 서술하여 체험의 총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을병연행록』이 국문으로 씌어졌다는 사실은 연행록이 국문독자의 교양물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행을 통해 중국에 다녀오면서 물품과 정보를 가져오는 양이 막대했지만 실상과 달리 중국에 대한 담론은 폐쇄적이었다. 전근대 시기 중국은 한반도에 유입되는 문화의 근원지였다. 수많은 서적, 회화, 그리고 각종 기물들이 주로 연행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왔다. 이는 막을 수 없는 대세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여행이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로 시정에 회자되었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이야기를 듣

34) "噴火爆折如初至下半忽湧出火團大如拳飛射半空如火箭又一筒湧火如前或射至半空又有爆裂聲四五小團散射而止如流星也…且紙炮之制遍天下公私費用如此中國焰藥之饒可知也"(元宵燈炮,『연기』,『담헌서』Ⅳ, 291쪽)

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완성된 여행기록을 읽고자 하는 욕구도 아울러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문연행록이 간혹 국문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저술된 연행록이 『을병연행록』이라 할 수 있다.

국문연행록은 전체 연행록의 규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한문연행록의 부산물로 취급받기 쉽다. 이에 반해 『을병연행록』은 한문번역본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 독자적 의의를 가진 국문연행록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국문독자에 대한 배려양상은 선행연행록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우선 『을병연행록』은 사행일행의 여행지침서로서의 성격이 확대된다.

> (1) 이곳이 싱치(生雉)를 흔히 프히 다 툥(銃)의 잡은 거시오, 텰환을 줄게 찌야 여러흘 넛는디라. 여러 텰환(鐵丸)이 술에 두루 박혀 아모리 골히여도 죵죵 남은 거시 박히여 나도 두어번 무러 여러날 알흐니, 계뷔 일노 인ᄒᆞ야 알흐시니, 북경 든니는 사롬이 조심홀 곳이러라.[35]
>
> (2) 이날브터는 군복을 벗고 누비 듕치막의 혁디를 띄고 머리의 흰 모단을 써시니, 이곳은 복 닙은 사롬 외에는 흰 관과 흰 오시 업는디라. 아국 일을 니기 모ᄅᆞᄂᆞ 니는 혹 드러와 보고 슈상이 넉이는디라. 대개 북경 드러가는 사롬은 빅의를 더옥 금ᄒᆞ얌즉 ᄒᆞ더라.[36]

(1)은 꿩고기를 잘못 먹으면 고기 속에 박혀있는 탄환을 씹어 이빨을 버릴 수가 있으니 이를 조심해라는 내용이다. 세세한 내용이지만 이는 연행을 떠나는 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를 모르고 이빨을 상했을 경우 여행의 괴로움은 당해본 자만이 알 것이다. 상하층에게 두루 요긴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대용은 『연기』와 『을병연행록』에 똑같이 이를 기록해 두었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정보제공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는 북경에는 흰 옷을 입은 자가 없으며 흰옷을 입은 사람을 수상히 여기니 북경 가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을병연행록』은 구체적으로 여행의 준비에서부터 여행도중에 일어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37]

---

35) 『을병연행록』, 153쪽.
36) 『을병연행록』, 207쪽.

또한 『을병연행록』은 읽는 재미를 중시한다. 곳곳에 笑話를 삽입하여 연행록을 읽는 또 다른 흥미를 제공한다. 그 중 金平仲의 거동은 가히 폭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 (1) 종고루북편은 아국 사롬이 흔히 단니는 곳이 아니니 ᄉᆞ나희와 계집이 다토와 구경ᄒᆞ는지라. 길ᄀᆞ 문 안희 ᄒᆞᆫ 계집이 단장이 션명ᄒᆞ고 얼골이 단정ᄒᆞᆫ지라 평듕이 물우희셔 손으로 ᄀᆞᄅᆞ치며 곱다 일ᄏᆞᄅᆞ니, 그 계집이 ᄉᆞ식을 변ᄒᆞ고 ᄉᆞ나희 ᄒᆞ나히 셧다가 대로ᄒᆞ야 무수ᄒᆞᆫ 욕셜을 듕어리ᄃᆡ, 평듕은 아라 듯디 못ᄒᆞ고 일양 ᄌᆞ식을 칭찬ᄒᆞ니 졀도ᄒᆞ더라[38]
>
> (2) 회ᄌᆞ의 상을 도라보니 흉험ᄒᆞᆫ 얼골의 대단이 노식을 씌여ᄂᆞᆫ디라 무숩패려ᄒᆞᆫ 욕이 이실 듯 ᄒᆞ거ᄂᆞᆯ, 급히 윤가롤 보며 눈을 금젹이니 윤개 뜻즐 짐작ᄒᆞ고 두 소ᄆᆡ 좁은 손을 푸러 노케ᄂᆞᆯ, 닉 드ᄃᆡ여 소ᄆᆡ을 썰치고 창황이 밧그로 나오니, 평즁은 문으로 겨유 드러다가 즉시로 도로나가 기ᄃᆞ리ᄂᆞᆫ디라. 닉 밧비 문을나 그 말을 젼ᄒᆞ니 평즁이 혹 회ᄌᆞ들이 좃ᄎᆞ와 욕된 일이 잇슬가 ᄒᆞ야 급히 술위롤 몬져 드러가니 졀도ᄒᆞ더라.[39]

김재행 평중은 홍대용이 따라간 동지사행의 부사 김선행의 얼육촌이다. 『을병연행록』에 드러난 인물됨을 보면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는 호방한 성격을 지녔다. 이 김평중이 『을병연행록』에서 감초와 같이 웃음을 일으키는 주요 인물로 그려져 있다. (1)은 종고루에서 평중이 미인을 보고 곁에 있던 그녀의 남편이 화내는 것도 모르고 넋이 빠진 채 여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장면이며 (2)는 평중이 회자국 사람을 보고 기겁을 하며 숨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상황을 매우 자세히 그린 것에서 필시 실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여 당시와 똑같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그가 빚어낸 笑話는 이 외에도 더 찾을 수 있다. 한편 홍대용도 웃음유발의 주체로 등장한다.

> 내 셕고롤 어로문져 이윽이 구경ᄒᆞ더니, 오림뫼 우ᄉᆞ며 ᄀᆞᆯ오ᄃᆡ,“이거시

37) 이 점을 고려하면 『을병연행록』의 주 독자는 양반가의 여성에 머물지 않고, 燕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인이하 평민 독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심이 있는 평민독자들도 얼마든지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들 역시 주요 독자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8) 『을병연행록』, 415쪽.

39) 『을병연행록』, 354-355쪽.

무숨 구경이 잇ᄂᆞ뇨?”
내 ᄃᆡ답ᄒᆞᄃᆡ,“이거시 졔일 고젹이니 듕국의 웃듬 구경이로다.”
오림푀 ᄯᅩ 우ᄉᆞ며 닐오ᄃᆡ,“궁ᄌᆡ 그 ᄒᆞ나흘 가져가미 해롭디 아니토다.”
내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날을 위ᄒᆞ야 칙문 밧그로 ᄂᆡ여 주면 내 친히 등의 디고 가리라.”
하니, 오림푀 대쇼ᄒᆞ더라.[40]

위 대목은 홍대용이 중국인과 나눈 대화이다. 태학을 함께 구경하던 통관 오림포가 홍대용에게 그곳의 石鼓를 가져가도 좋다고 농을 건네자, 홍대용은 나를 위해 책문 밖으로 내어주면 친히 짊어지고 가겠다고 응수하였다. 실없는 농담인 것 같지만 홍대용의 재치가 번득이는 대목이다. 오림포의 이 말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국보를 자기 마음대로 유출하는 대죄를 짓는 것이지만 실현가능성 없는 일이기에 말 한마디 선심을 베푼다. 이에 홍대용은 상대의 허풍을 보기 좋게 족쇄로 삼아 일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박아두는 재치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바탕 웃음거리로 삼고 있으니, 홍대용도 농담을 주고받는 일에 뒤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을병연행록』은 웃음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곳곳에 안배하여 흥미지속의 효과를 추구한다. 곧 홍대용은 연행에서 일어난 笑話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두어 국문대중을 고려한 흥미지속 장치로 사용하였던 것이 분명하다.[41] 이상에서 살핀 대로 『을병연행록』에서 보이는 실용성, 흥미성의 확대는 연행록을 국문독자층으로 확대하면서 취한 한 적극적 방편임을 보여준다.[42]

---

40) 『을병연행록』, 318-319쪽.

41) 이로 보면 홍대용의 『을병연행록』도 『열하일기』와 비교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의 수와 농도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 다만 『열하일기』의 웃음이 좀더 정치적, 풍자적인 의도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연암의 수법에 의하여 돌출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홍대용의 연행록을 비롯하여 선후연행록을 통해 부단히 축적되다가 열하일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열하일기의 웃음에 주목한 고미숙의 관점은 일면 중요한 면을 지니지만 이점에서 연행록의 사적맥락을 염두에 두고 세밀히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 참조)

42)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연기』가 추구한 새로운 중국담론을 구성하려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 다만 『연기』는 한문독자, 『을병연행록』은 국문독자의 성향에 맞게 각각 그 구성과 서술을 달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을병연행록』은 18세기 조선에게 중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중국을 읽고자 하는 뜻이 담긴 중국여행기임은 물론 한문의 단순번역에 머물지 않고 국문의 표현미를 적극 살리고 나아가 국문독자의 요구를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여 이들의 독서성향에 맞추어 저술한 의도가 두드러지는 연행록이라 할 수 있다.

Ⅲ. 마무리

이상에서 연행록 중 독특하게 세 편을 남긴 홍대용의 텍스트를 그 구성방식과 성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각각의 텍스트는 서로 공유하는 성격도 있지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회우록』은 그의 연행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을 여타의 체험과 차별화하여 독자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문어인 한문으로 필담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중세 한중지식인 교류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연기』는 한문지식층에게 익숙한 연행록의 구성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한문연행록의 혁신을 꾀하였다. 나아가 중국에 대한 기존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새로운 중국담론을 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을병연행록』은 여행의 총체적 재현을 지향하고 있다. 한문식자층에 국한된 연행록독자를 확대하여 국문독자들에게 실용적 의미를 가지도록 하며 아울러 흥미롭게 중국여행의 전모를 전달하려 하였다.

이렇듯 홍대용은 자신의 연행록을 사대부 계층에만 한정짓지 않고, 국문을 깨우친 백성에게까지도 널리 중국사정을 알리기 위해 국문으로 연행록을 저술했다. 국문연행록이 더 소상한 것은 그가 연행록의 저변확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한문연행록의 파격적 구성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 북학이라는 학문정립에 일차근거로 삼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을 총괄하면 홍대용의 연행록은 독자저변확대, 새로운 학문정립이라는 두 방향을 동시에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텍스트이며, 이는 당대 조

선의 현실적 모순이 심화되는 역사적 상황에서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식인의 적극적 활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 홍대용, 회우록, 연기, 을병연행록, 대화적 구성, 한중교류, 견문의 범주화, 중국담론, 총체적 재현, 독자 확대

참고문헌

임수간,『東槎日記』,『해행총재』Ⅸ, 민족문화추진회, 1982.

홍대용,「의산문답」, 국역『담헌서』Ⅰ, 민족문화추진호, 1974.

홍대용,「항전척독」, 국역『담헌서』Ⅱ, 민족문화추진회, 1974.

홍대용,「연기」, 국역「담헌서」Ⅳ, 민족문화추진회, 1974.

홍대용, 소재영 외 주해,『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홍대용, 김태준 외 옮김,『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5쪽.

고미숙,『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

김태준,『담헌연기』와『을병연행록』의 비교연구,『민족문화』11, 민족문화추진회, 1985.

김태준,「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강관필담을 중심으로」, 숭실대 논문집 18, 1988.

박희병,『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177-293쪽.

소재영·조규익,「담헌연행록연구」,『동방학지』97, 연세대국학연구원, 1998

임기중,『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87쪽.

임형택, 홍대용의 의산문답,『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167-180쪽.

조규익,『국문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정훈식,「건정동필담」과 사행문학의 전환,『배달말』31집, 배달말학회, 2002.

정훈식,「을병연행록과 18세기 조선의 중국읽기」,『국제어문』33집, 국제어문학회, 2005.

최익한,『실학파와 정다산』, 국립출판사(평양:한국문화사 영인본), 1955, 131쪽.

陳必祥, 심경호 옮김,『漢文文體論』, 이회출판사, 1995, 144쪽.

<Abstract>

The Construction and Special Feature of Hong Dae-Yong's Travel Itinerary

Jung, Hun-Sik

Hong Dae-Yong peculiarly wrote three volumes of travel itineraries unlike other contemporary authors. Each of them shares same thing but has characteristics of its own. Firstly, *Huaewoorok*(會友錄) aims to give special value on it by distinguishing most important experience from other experience during his travel. Conversation by writing was recorded in Chinese, common language of East Asia those days, and it became a great textbook with which many intellectuals in medieval Korea and Chinese exchanged their thought. *Yeongi*(燕記) tried to bring innovation on its way of construction which had been very familiar to Chinese intellectuals. Furthermore, He tried to provide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China, and help people to have new correct understanding on China. Lastly, *Eulbyungyeonhaengrok* (을병연행록) pays great effort to tell a story about travel in a very vivid description. It tried to give practical meaning to Korean readers by expending its reader to Korean readers as well as Chinese readers, and also tried to deliver entire aspect of Chinese travel.

As shown above, Hong Dae-Yong's travel itinerary is a very peculiar text through the process of heading for two different directions, such as expending its readers and establishing new scholarship, and it also reflects an aggressive activity of an intellectual who coped with difficult situation of contemporary chosun, a world of contradiction.

+

Key Words : Hong Dae-Yong, *Huaewoorok*, *Yeongi*, *Eulbyungyeonhaeongrok*, conversational constitution,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place under the category of information, discourse on China, generally reappearance, expanding reader.